

사내 밴드에서 발견한 음악의 즐거움

글. 박성호 EBS ICT 인프라부



팬데믹 시대가 지나고 대내외 환경이 변화하면서 회사 동료들과의 교류가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를 체감합니다. 개인의 삶이 중시되는 시대에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은 여전히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방송국은 다양한 재능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열정을 공유하며 함께 즐기기에 훌륭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음악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사내 밴드에 참여하며 예상치 못한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팀원들과의 합주를 통한 즐거움과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도전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평소 피아노를 좋아하던 저는 퇴근 후 좋아하는 멜로디를 연주하며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재즈 피아노 특유의 화성과 자유로움이 좋아서 어설프게 흥내 내보기도 했지만, 깊이 탐구하기에는 열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의지하던 수석님께서 “밴드에 들어와 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후배들을 잘 챙기고 매사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셨던 수석님의 권유는 자연스럽게 신뢰를 주었고, 이를 계기로 밴드에 합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피아노 파트를 맡아 밴드에 합류했습니다. 첫 합주에서는 어색한 부분도 많았지만, 팀원들과 점차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밴드 초심자임에도 불구하고 합주의 즐거움을 금방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함께 연주하며 곡이 완성되어 가는 순간에 혼자만의 연주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밴드 활동은 제 음악적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팀원들이 제안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고 연주하며 평소 접하지 못했던 곡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었고, 특히 진부한 멜로디라는 편견을 가졌던 올드팝의 독특한 감성은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다채로운 음악을 접하면서 제 취향과 감각이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밴드 활동의 중요한 장점은 정기적으로 연습 일정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었고, 체계적인 훈련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합주 후 녹음본을 들어보며 팀원들과 함께 개선점을 논의하고 각자의 연주를 점검하는 과정은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음악적 경험이 풍부한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곡의 분위기를 살리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과정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연주를 보다 자연스럽게 완성도 있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밴드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개인적인 발전과 팀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성취감을 통해 제 삶에 새로운 활력과 만족감을 더해주었습니다.

다양한 곡들을 연습하다 보니 베이스 기타를 배우는 것이 팀의 조화를 위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악기를 배운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팀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과 날마다 연습하며 새로운 악기에 도전하는 멤버들에게 자극을 받아 의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피아노에 비해 베이스 기타는 비교적 단순한 음을 연주한다고 생각해서 어쩌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배우기 시작하니 기본적인 손가락 훈련을 통해 지판의 음계를 익히는 과정조차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답답했던 순간도 많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며 점차 악기와 친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베이스 기타는 단순한 구조 속에서도 음악의 리듬과 화음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곡을 더욱 탄탄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진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이 악기를 통해 음악을 더욱 다채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달간 연습을 이어가던 중, 저를 밴드에 초대해 주신 수석님의 퇴직을 기념하여 그분의 남편께서 깜짝 이벤트로 작은 공연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객

원 멤버로 초대받았는데, 그분의 실력이 프로에 가깝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처음에는 큰 부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습은 최선을 다하되, 공연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조언을 주신 덕분에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새기며 집중적으로 연습했고, 공연 당일 긴장감은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실수도 잦았지만, 이를 극복하며 음악에 몰입하는 경험은 희열을 안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은퇴를 맞이한 수석님께 음악으로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할 수 있었다는 점은 더없이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음악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더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새로운 악기에 도전하며 느낀 어려움과 성취감, 팀원들과 함께 연습하며 만들어가는 성취감은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다양한 곡과 장르를 접하며 음악적 시야가 넓어졌고,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 꾸준히 노력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음악을 통해 단순로운 일상에 에너지를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더 많은 분이 저희 밴드에 참여해 음악의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음악적 실력이나 경험에 부족하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니, 관심이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

